

“보안업체도 못믿겠네” 광주 치평동 한 금은방 2년 새 두차례나 털려 무인 경비시스템 ‘무용지물’ 범인 놓치기 일쑤

광주 한 금은방이 2년 사이에 두 번이나 털렸다. 새벽 시간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경찰과 경비업체가 도착했을 때 범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동일한 금은방, 1년에 한 차례씩 = 25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Y금은방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금반지 등 귀금속 30여점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들은 미리 준비한 손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 진열

장을 부수고 안에 있던 8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2분 30초가 걸렸고, 경찰과 경비업체는 이로부터 2분 30초 뒤에야 도착했다.

CCTV에 찍힌 2인조 절도범은 170cm~175cm 가량의 키에 마스크·후드티·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금은방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9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도난 피해를 당했고, 당시 범

인들도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도로변에 있는 4평 남짓한 소규모 금은방이 두 차례에 걸쳐 2인조 절도범에게 털린 점에 주목하는 한편, 두 차례 모두 벽돌과 망치 등으로 유리문을 깨고 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용의자 추측에 나선 상태다. 해당 금은방은 경비업체와 도난 사건에 대비, 피해에 대한 배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 매뉴얼 강화 시급=도난 피해를 입은 금은방은 상무지구 대로변

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용이한데다, 대형 사설보안업체인 S사와 2년 전부터 보안 계약을 맺어왔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경비업체는 비상경보가 울린 3시 34분에 경찰 신고와 함께 출동했다. 관할 지구대는 37분에 출동 지령을 받아 2분 뒤인 39분에 도착했고 경비업체가 뒤이어 현장에 도착했지만 절도범은 사라진 뒤였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신규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는 광주 21곳, 전남 17곳에 이른다.

경비대상 경비업체들은 범죄 발생 후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금은방 절도와 같은 신속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범인이 검거할 수 있는 경비 매뉴얼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1년 전 절도범조차 잡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치안력 및 수사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많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검붉은 꽃무릇 장관 25일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지구 관광단지에서 찾은 관광객들이 만개한 꽃무릇 길 사이로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역사 왜곡 대응 교과서 만든다

시교육청, 내년 발간 목표 '교육감 인정도서' 제작 추진

우리역사 바로알기·올바른 역사교육 강화 조례 제정도

광주시교육청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응하는 '교육감 인정도서'를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이 책은 오는 2015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한국사 보충교재로 활용할 방침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의 검정이 취소되지 않은 만큼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범시민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문제의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거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주·인권 교육,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전파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올바른 역사가 기술된 교육감 인정도서와 장화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편찬된 교과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한편, 가칭 우리역사 바로알기와 올바른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방침이다.

민주·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안전생활과 민주인권교육센터·대안교육센터 등을 통한 ‘민주인권생활교육과(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 교육감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역사 왜곡 교과서 퇴출 결의문’을 상정·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사편찬위원회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협조를 요청하고 시민공청회·토론회·교사 연수 등을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성관계 경험 청소년 평균 15세에 시작”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고교 1년생 시절인 평균 15.1세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제근 의원이 25일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청소년 464명의 성관계 평균 시작 연령은 15.1세였다. 이 중 7.6%는 초등학교 때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했고 중학교 때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응답도 절반(중1 11.8%, 중2 17.4%, 중3 20.1%)에 육박했다.

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전국청소년건강행태 조사’ 자료를 인용, 성관계 청소년 중 남자 42.8%, 여자 41.1%만이 성관계 시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환뉴스

전투경찰 사라진다 42년간 3211기 배출

1971년 창설 이래 42년간 대(對)간첩작전과 각종 시위 현장에서 활동한 전투경찰이 25일 마지막 기수의 전역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청사 대강당에서 전경 마지막 기수인 3211기 183명의 합동 전역식을 열었다. 전경의 시초는 정부가 후방지역 대간첩작전과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직업 경찰관으로 이뤄진 전투경찰대를 창설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환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3분 해질 18시 24분 달돋이 23시 02분 달질 12시 36분

아침 저녁 쌀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 보여졌다.

광주	맑음	13/25°C
목포	맑음	15/13°C
여수	맑음	18/25°C
나주	맑음	15/25°C
완도	맑음	11/26°C
구례	맑음	14/25°C
강진	맑음	14/25°C
남해	맑음	14/25°C
장흥	맑음	14/25°C
순천	맑음	11/25°C
영광	맑음	13/24°C
진도	맑음	14/24°C
전주	맑음	12/24°C
군산	맑음	12/23°C
남원	맑음	10/23°C
혁신도	맑음	17/21°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불쾌지수
경고 보통 보통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금)	28(토)	29(일)	30(월)	10/1(화)	2(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3/25	16/26	18/26	18/26	17/27	17/26

여수시청 직원 횡령 80억 검찰 국고환수 직접 나서

순천지검, 김씨 부동산 등 집중 추적

여수시청 직원 80억 횡령했던 80억대 공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적극 나섰다.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청 직원 김모(48)씨가 횡령한 80억대 공금을 환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여수시에 감사실 직원 파견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항소, 9년을 선고받자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

한데 협의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법집행에 따라 국고 환수에 나섰다”며 “김씨의 동산·부동산 등 재산을 중심으로 집중 추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도 범죄와 관련되면 환수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정법’에 따라 김씨에 대해 추가 환수여부를 검토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는 김씨가 횡령한 공금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바른성사! 결혼성사시까지...**

(백영숙 이사, 유정선 부원장 출연) **성사율 호남 1위**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교원, 전주고등학교교원]

초혼		재혼	
남	女	남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공무원, 교사 32~58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교사 29~48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자영업, 가사 35~63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무자녀 남성’ 희망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전주시 서신동 호남지사 063) 275-7766

소자본 창업 1~2억 들어가는 점포임대비, 가맹비, 인테리어비용 **꼭 이겨해야 성공합니까?**

1분바로 컵찜 사업으로

신개발 불곰창 떡볶이로 1인자가 되십시오!

1.38만원으로 떡볶이 점포도대를 운영하십시오!
1분바로컵찜가가 1등요리사!

1분바로 컵 찜

- ① 국내최초 시판
- ② 고압 스팀방식으로 1분만에 조리
- ③ 시각·청각을 자극하는 스팀효과로 구매효과 100%

사업 내역

- ① 로메오거리, 학교앞, 배점, 동산로 및 A급 상권내 점포에 설치보장
- ② 전화 한통으로 주문 배송완료
- ③ 직접 운영 및 임대운영
- ④ 다양한 메뉴 공급
- ⑤ 손쉬운 물류 공급 마진

동네마다 넘쳐나는 떡볶이집... 다들 비슷비슷한 맛의 떡볶이!

1분바로 컵찜의 불곰창떡볶이를 맛보신 분들은 마약떡볶이라고 하십니다. 100% 성공 확실하십니다!

(주)엘림FC코리아 광주지사
광주 및 인근 전남 사업자 모집 ☎ 062-944-5566